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5자 구도’ 출발 할 듯

‘5·9 장미대선’ 대진표 윤곽...사실상 본선 국면 진입

‘5·9 장미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레이스가 속도를 내면서 이번 주중 본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각 정당의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주자 간 우열이 속속 드러나면서 본선 진용 역시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선 시작 전 일부 후보 간 혼전이 예상됐지만, 초반부터 ‘대세론’을 앞세운 특정 주자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본선 후보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전 대표가 금명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가 뛰어들면 대선 구도는 급격하게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시 8일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그러나 27일 실시된 호남 권역 순회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2%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대선 후보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분석이다.

각각 20.0%와 19.4%의 득표율을 올린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은 남은 경선에서 뒤집기를 버리고 있지만,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압승한 문 후보의 상승세가 접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1일 후보를 확정하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우위가 점쳐진다. 홍 지사는 이미 2차례 진행된 예비경선에서 과반에 육박한 득표율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이 없는 한 낙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태 의원(기호 순)의 추격 전도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지난 25~26일 실시된 호남권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누적 득표율 64.6%의 압도적 1위에 오르며 본선 진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득표율은 각각 23.5%, 11.9%였다.

국민의당은 ▲4월 1일 경기 ▲4월 2일 서울·인천

4당 초반 경선 1위 후보 압승

보수·중도 단일화 여부 따라

양자~5자 구도 다양한 시나리오

김종민 출마면 대선구도 급격 재편

을 거쳐, 마지막으로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에서 투표를 마친 뒤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바른정당은 이날 대선 후보로 4선의 유승민 의원을 공식 선출했다.

유 후보는 국민정책평가단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당원선거단 30%를 각각 반영한 경선에서 총 3만6593표(62.9%)를 얻어 남경필 후보(2만1천625표, 37.1%)를 누르고 승리했다.

유 후보는 비문(비문재인) 연대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비문 단일화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경선 중·초반의 흐름으로 보면 정당별 경선 결과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등 4자 구도로 짜일 공산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대선 후보를 확정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 포함하면 5자 구도다.

다만,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민주당을 제외한 보수와 중도 진영은 후보 단일화 등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종 대진표가 나오기까지 대선 정국은 몇 차례 출렁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본선은 양자 대결부터 5자 대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비문(非 문재인) 진영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단일화를 하면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국민의당까지 ‘비문 연대’에 가세하면 민주당 대 비문연대의 양자구도가 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PK 대첩’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앞줄 왼쪽부터), 박주선 국회부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안희정·이재명 ‘중원 쟁탈전’

민주당 오늘 총청 경선

文 “1위 고수...대세론 굳힌다”

安 “홈그라운드서 역전 발판”

李 “文 과반 저지 수도권서 승부”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호남권 경선에서 이어 치러지는 29일 ‘총청대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선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지난 27일 호남권역 경선에서 과반을 넘겨 승리한 문재인 전 대표는 총청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대세론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3위에 고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총청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다.

우선 문 전 대표는 이날 영남권 지역방송 TV토론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비워두는 등 다음날 총청 순회경선을 대비했다. 문 전 대표 진영에서는 총청은 안 지사의 텃밭인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하지만, 대전과 충북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과반 득표는 아니더라도 1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역에서의 승리는 ‘캐스팅 보트’ 중원의 표심을 얻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어 문 전 대표

측에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총청에서 1위를 기록한 뒤, ‘정치적 고향’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다시 압도적인 승리를 일궈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 측은 호남에서 문 전 대표의 ‘과반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안방 충청에서의 승리를 통해 역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문 전 대표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것은 부담이지만, 호남권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하고 20%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안 지사 측에서는 ‘총청 대명론’을 바탕으로 충청권에서 불씨가 나온다면 다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시장은 호남 경선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안 지사와 박빙으로 격차를 좁힌 만큼 이후 역전 기회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충청권에서도 세력은 약하지만, 15~20% 정도의 지지율을 목표로 문 전 대표의 과반을 저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호남에서 안 지사와 거의 동률로 나왔다. 열성적 지지층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도 증명됐다”며 “이런 호남의 선택이 충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차기 대통령, 靑 비서실·인수위 ‘투트랙’ 운영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5·9 대통령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업무를 담당할 ‘국정인수위원회’를 꾸릴 길이 열리며 따라 앞으로 구성될 이 기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국정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4조 등에 따르면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인수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통상적인 경우 12월 대선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이듬해 2월25일 취임직전까지 두달간 운영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권출발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인수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는 현재 대선 경선 레이스가 한창인 주요 4당의 원내지도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통령이 꾸릴 국정인수위가 기존의 인수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운영 주체다. 현행 법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꾸리지만, 이번에는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현 청와대의 기능을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정권 인수의 실질적 주체인 국정인수위를 가동하는 ‘투트랙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국정인수위 운영 기간은 통상적 인수위보다 짧아진다. 현재는 인수위가 60일간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인수위 활동 기간은 45일로 줄어들었다.

기존대로 5·9 대선 후 꾸려질 국정인수위에서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현행법에는 총리 후보자가 ‘추천할 수 있다’로 표시돼 재량 사항으로 바꾸었다. /연합뉴스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북큐슈 정통〉	벳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북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초·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은 플드워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북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밧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여행:1억원, 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개인서(회사구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시/가이드봉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